

2012
November 9

글로벌 보건산업동향

Weekly Healthcare Industry Trends



포커스

글로벌 모바일헬스 동향

정책동향

- [미국] ADHD, 미국 경제에 연간 2천7백억불 손실 야기
- [영국] 영국, 유방조영술 과잉 진료 방지 NHS 프로그램 시급
- [일본] 일 후생성, 의료비 지원 대상 난치병 3백개 이상으로 확대
- [아시아] 태국,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로 '15년 2조 바트 수익 기대

산업동향

- [미국] 미 BMS, 아빌리파이 마케팅 인력 5백명 감원
- [호주]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, "고단백 식사가 체중 감량에 효과"
- [중동] 네덜란드 필립스, 요르단에 환자 친화적 환경 구축 지원
- [일본] 일본 제과업체 에자키, 스킨케어로 화장품 시장 진출

신규보고서

- [미국] 불황을 모르는 미국 고급향수 시장
- [중동] 터키 제약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

포커스

- 글로벌 모바일헬스 동향 1

정책동향

- [미국] ADHD, 미국 경제에 연간 2천7백억불 손실 야기 5
- [영국] 영국, 유방조영술 과잉 진료 방지 NHS 프로그램 시급 5
- [글로벌] 스위스·캐나다, 노바티스 독감 백신 판매금지 해제 6
- [러시아] 러시아 정부, 음주·흡연과의 전쟁 선포 6
- [일본] 일 후생성, 의료비 지원 대상 난치병 3백개 이상으로 확대 7
- [아시아] 인도 지식재산향소위, 스위스 로슈 '페가시스' 특허 취소 7
- [아시아] 태국,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로 '15년 2조 바트 수익 기대 8
- [중동] 쿠웨이트, 헬스케어 투자 확대...3천5백여 병상 추가 확보 8

산업동향

- [미국] 미 BMS, 아빌리파이 마케팅 인력 5백명 감원 9
- [미국] 미 하버드·MIT대, 무통증 의료용 테이프 개발 9
- [중동] 일 오즈카, 터키 압디와 의약품 판매 합작회사 설립 10
- [미국] 미 마이애미대, "타인 골수줄기세포로 심장 치료 가능" 10
- [미국] 당뇨병자 우회수술, 약물코팅 스텐트보다 효과적 11
- [미국] 미 루이지애나주립대, 'MAGL' 효소 억제 통해 알츠하이머 치료 11
- [호주]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, "고단백 식사가 체중 감량에 효과" 12
- [중동] 네덜란드 필립스, 요르단에 환자 친화적 환경 구축 지원 12
- [EU] 미 월그린, 스위스에 뷰티·헬스 합작사 설립 13
- [글로벌] 프랑스 칼 라거펠트, 코티 대신 미 인터파폼스와 향수 제휴 13
- [글로벌] 프랑스 로레알, 미 헤어케어 유통업체 에밀리아니 인수 14
- [일본] 일본 제과업체 에자키, 스킨케어로 화장품 시장 진출 14

신규보고서

- [미국] 불황을 모르는 미국 고급향수 시장 15
- [중동] 터키 제약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16

포커스

글로벌 모바일헬스 동향

이동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의료 및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이 확대. 본 보고서는 일본 KDDI연구소가 '12년 10월 발표한 '세계 모바일헬스 동향(世界のmHealth動向)'를 통해 세계 모바일헬스 시장의 동향과 글로벌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헬스 관련 사업 전략을 고찰

□ 모바일헬스 현황

- (개요) 모바일헬스(mHealth)는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보건의료 서비스로 정의
 - 모바일 기술을 통해 보건의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다양하고 품질 높은 서비스를 실현
 - 모바일헬스는 보건의료 서비스 단계에 따라 △건강·질병예방, △진단, △치료, △경과 관찰 등 4개로 분류
 - * (건강·질병예방) 건강·질병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, 다이어트·피트니스·식사관리 애플리케이션
 - * (진단)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원격 진단, 만성질환관리
 - * (치료) 환자의 조기퇴원을 위한 모니터링, 의사의 원격 모니터링
 - * (경과 관찰) 퇴원 이후의 질병관리, 알람시스템
- (시장) '17년 모바일헬스 시장은 규모가 230억불에 달할 정도로 견조한 성장이 예상
 - 전세계적으로 691개 모바일헬스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며, 이중 이동통신 사업자가 267개의 서비스를 제공
 - 보건의료 서비스 단계별로는 규제의 영향이 가장 적은 '건강·질병예방' 모바일헬스 서비스가 가장 많은 반면, 규제의 영향이 큰 '치료' 모바일헬스 서비스는 수가 적은 편

- 선진국에 비해 아프리카, 아시아 등의 신흥시장에서 모바일헬스 서비스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

<그림> 지역별·카테고리별 모바일헬스 서비스 수

	건강 질병예방	진단	치료	경과관찰
북미	31	16	2	36
남미	19	20	0	11
동유럽	13	4	0	4
서유럽	15	11	1	41
중동	34	14	6	13
아시아-오세아니아	75	36	0	28
아프리카	69	13	16	31

□ 선진국 및 신흥국의 모바일헬스 특징

- (선진국)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, 모바일헬스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확대 및 다양화함으로써 의료비 증가를 억제
 - 모바일헬스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만으로도 2천억불의 의료비 감축이 가능(GSM Association, 맥킨지 추산)
- (신흥국)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, 임산부 사망 등 높은 사망률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므로, 그동안 보급된 휴대전화를 통해 모바일헬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족한 인프라의 일부 보완이 가능
 -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 모바일헬스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연간 15만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(GSM Association, 맥킨지 추산)

□ 주요국의 모바일헬스 정책 및 이동통신사 사업 현황

▶ EU

- (정책) 이-헬스(e-Health)를 각종 정책의 중점 투자 분야로 선정하고, 모바일헬스를 포함한 의료 ICT 보급을 적극적으로 시행

- '10년 EU가 발표한 '유럽 디지털 아젠다'는 이-헬스분야의 실천계획으로 '15년까지 표준마련 및 상호운용 촉진, '20년까지 원격의료 보급 등을 채택
- (대표사업자) 영국 이동통신 사업자인 보다폰(Vodafone)은 다양한 질환의 환자를 대상으로 모바일헬스 서비스를 제공
 - 포르투갈에서 시행 중인 간질환자용 원격 모니터링서비스, 스페인에서 시행 중인 알츠하이머 환자의 위치정보서비스 'SIMAP' 등이 대표적 사례

<그림> 보다폰의 모바일헬스 서비스 사례

<p>간질환자 대상 원격 모니터링서비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간질환자 뇌파 등의 검사결과를 원격으로 PC나 PDA로 확인. 의사의 긴급 판단 등을 지원 • '08년부터 Vodafone 포르투갈과 서리스본 병원이 제휴 	<p>SIMAP (알츠하이머 환자의 위치확인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Vodafone스페인과 적십자가 알츠하이머 환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서비스 • 환자는 GPS를 지원하는 모바일 기기를 휴대. 모바일 기기는 SIMAP센터에 정기적으로 위치정보를 전송 • 정해진 지역을 벗어나면 가족에게 통보 
<p>만성질환자 원격 모니터링서비스(실증실험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당뇨환자가 모바일을 통해 전용web에 매일 혈당치를 입력 • 의사가 혈당치를 기초로 판단하거나, 조언을 전송 • 환자는 이전보다 손쉽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응답 	<p>'Hospital to Home' (실증실험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장기간 케어가 필요한 환자를 가능한 집에서 요양 • 환자가 자택에서 놓은 주사 로그를 기록 • 의사, 간호사 등이 로그를 체크할 수 있음 • '11년 英 Vodafone과 英 Baxter병원이 제휴 

▶ 미국

- (정책) '09년 제정된 '경기부양법'에서 의료 ICT가 중점 투자 분야로 선정된 이후 4년간 의료 ICT에 200억불을 투입
 - 전자의료기록(EMR) 도입을 법제화하는 한편 보급 촉진을 위해 '11년 전자의료기록을 도입한 병원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한편 '16년 이후 이를 도입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할 예정
 - * '11년 11월 현재 전자의료기록 보급률은 약 57%로 조사
- (대표사업자) AT&T는 '10년 의료전담 부문인 'AT&T 포 헬스(AT&T For

- Health)’의 출범을 통해 환자 관리 개선 및 의료비 감축을 목표로 모바일 접속이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개발
- 클라우드 기반 의료 영상 저장 및 공유 서비스인 ‘MIIM(Medical Imaging and Information Management)’이 대표적 서비스
 - * 의료기관 의료 영상 저장·전송 시스템인 PACS를 통해 의료 영상을 업로드하면 AT&T의 서버를 통해 일괄 관리가 가능
 - △AT&T 가상 케어(AT&T Virtual Care, 원격 의료 서비스) △헬스케어 커뮤니티 온라인(Healthcare Community Online, 환자진료기록을 공유하는 클라우드 커뮤니티 서비스) 등도 운영

<그림> AT&T의 mHealth 서비스 사례

<p>AT&T Virtual Care (원격의료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화상전화를 사용한 원격의료 서비스 · PC, 스마트폰, 태블릿PC로 이용 가능 · 멀티포인트로 동시 이용 가능 	<p>Healthcare Community Online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의료정보 공유서비스 · 환자의 임상기록 공유 및 분석 · 환자와 가족들도 데이터에 접속가능 · Baylor Healthcare와 John Muir Health 등 여러 의료기관이 이미 도입 
<p>Diabetes Manager (당뇨병 관리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환자는 전자기기에 혈당치와 임상데이터 입력 · 의사가 실시간으로 피드백과 다음 단계에 대해 조언 · 자기관리를 위한 각종정보 제공 · '12년 3분기 제공을 시작할 예정 · Alere사와 제휴 	<p>mHealth 애플리케이션 개발센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개발자용 툴과 인프라 환경을 제공 · 애플리케이션간 제휴 촉진, 개발속도 향상, 저비용 실현을 목표로 함 · '12년 2월 설립(AT&T For Health 산하) 

▶ **신흥시장**

- (방글라데시) 그라민폰(gramen phone)은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'06년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한 '헬스라인(Health Line)'을 운영
 - 24시간 연중무휴로 의사의 건강 상담과 약·병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250개 클리닉, 8백개 병원, 8천명의 의사가 등록
 - 임산부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임신 단계별로 적절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3년내 50만 명에게 제공할 계획

정책동향

ADHD, 미국 경제에 연간 2천7백억불 손실 야기

- 미국 터프츠대와 펜실베이니아대, 제약업체 샤이어(Shire) 공동연구팀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(ADHD)가 미국 경제에 연간 1천430억~2천660억불의 국민초과비용(national excess costs) 부담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
 - 또한 성인 ADHD 환자와 가족이 국민초과비용의 70% 이상을 담당, 일반 통념과 달리 성인 ADHD가 소아 ADHD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분석
 - * 국민초과비용이란 ADHD 치료비, ADHD로 인한 생산성 하락 및 임금 손실, 학교 결석·조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
 - 연구팀은 '90년 1월~'11년 6월 ADHD 환자와 ADHD 환자를 둔 가구의 항목별 지출비용을 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해 일반 대조군과 비교
 - 연구 결과는 미국 소아청소년의학회지(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)에 발표 [MEDTERA, 2012.11.01]

영국, 유방조영술 과잉 진료 방지 NHS 프로그램 시급

- 영국의 독립유방암심사검토위원회(Independent Breast Cancer Screening Review : IBCSR)는 유방조영술(mammography)을 이용한 과잉 진료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(NHS) 유방암 퇴치 프로그램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
 - IBCSR은 국가가 지원하는 NHS 유방암 퇴치 프로그램(예산 9천6백만 파운드)은 매년 1천3백명의 생명을 구하는 등 효과가 있음은 확실하지만 4천명은 과잉 진료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
 - 현재 영국에서는 NHS의 유방암 퇴치 프로그램에 따라 50~70세 여성들이 매 3년마다 유방조영술 검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, 잉글랜드에서는 검사 대상을 47~53세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중
 - 한편 영국에서 유방조영술 검사를 받는 50~52세 여성은 해마다 30만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 [Telegraph, 2012.10.29]

스위스·캐나다, 노바티스 독감 백신 판매금지 해제

- 스위스와 캐나다 보건 당국이 스위스 노바티스(Novartis)의 독감 백신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,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지 의약업계의 관심이 고조
 - 스위스 의약감독청인 스위스메딕(Swissmedic)은 백신에 이물질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을 이유로 노바티스 독감 백신 16만명분의 납품 중단을 명령했으나, 노바티스가 안정성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함에 따라 판매금지를 해제
 - 캐나다 공공보건국(Public Health Agency)은 보건 전문가들의 점검 결과 노바티스 백신의 안정성이 확인되었다며 판매 재개를 허용
 - 최근 노바티스의 독감 백신에 이물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로 스위스, 오스트리아, 독일, 프랑스, 스페인 등 유럽 각국과 캐나다가 판매를 금지
 - * 이탈리아의약청(AIFA)의 경우 노바티스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백신의 품질과 안전성에 관한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고 실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백신의 사용과 판매를 금지 [PMLive, 2012.11.02]

러시아 정부, 음주·흡연과의 전쟁 선포

- 러시아 정부가 주류 제품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고 주류세를 대폭 인상한 데 이어 금연 구역을 크게 확대한 ‘금연법’을 의회에 제출
 - 동 법은 기차역과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, 대학교 등 교육 시설, 문화·스포츠 시설, 정부 관청 등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
 - 러시아 정부는 금연법과 함께 현재 2블 수준인 담배(말보루) 한 갑의 가격을 '15년까지 유럽 평균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으로, 보건부는 이 경우 흡연율이 절반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
 - 한편 지난해 러시아 정부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 사이 주류 판매와 공공장소 내 음주를 금지했으며 '13년부터는 주류 광고를 일체 금지할 예정
 - * 또 올 들어 보드카의 최저가를 0.5 리터당 125루블까지 올린 데 이어 '15년에는 2백루블까지 인상할 방침
 - 러시아에서는 매년 90만명이 흡연과 음주로 사망하는 가운데, 흡연과 음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최소 1천40억불로 GDP의 5%를 상회[Businessweek, 2012.10.31]

일 후생성, 의료비 지원 대상 난치병 3백개 이상으로 확대

- 일본 후생노동성은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난치병 질환 수를 현재 56개에서 3백개 이상으로 확대(구체적 대상은 추후 확정)하고, 이를 위한 재원 확보도 법제화하기로 결정
 - 현재 후생성은 △환자수가 전체 인구의 0.1% 이하이고 △원인이 불분명하며 △진단 기준이 없고 △효과적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△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난치병 482개를 선정
 - 그러나 의료비 지원은 예산상의 이유로 56개로 한정된 이후 확대되지 않아 난치병 환자 사이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형평성을 높이고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대상 확대를 결정
 - * 56개 질환 환자 수는 약 36만6천명이며 평균 연령은 41세로 추산
 - 후생성은 ‘중증도 기준’을 도입, 같은 난치병이라도 질환 정도 및 환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의료비 지급에 차등을 둘 계획 [日本經濟新聞, 2012.10.31]

인도 지식재산항소위, 스위스 로슈 ‘페가시스’ 특허 취소

- 인도 지식재산항소위원회(Intellectual Property Appellate Board : IPAB)는 스위스 로슈(Roche)의 C형 간염 치료제 ‘페가시스(Pegasys)’ 특허를 취소
 - IPAB는 페가시스가 지난 '06년 인도에서 새로 제정된 특허법에 따라 특허를 취득한 첫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, 시중에서 판매되는 기존 치료제보다 성능이 우수하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약가도 비싸다며 특허 취소를 결정
 - IPAB는 이에 앞서 독일 바이엘(Bayer)의 항암제 넥사바(Nexavar)에 강제실시(compulsory license)를 적용해 현지 제약업체 나트코(Natco)의 제네릭 판매를 허용한 바도 있어 이번 결정으로 글로벌 제약업체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
 - * 강제실시란 공익적 필요가 있을 경우 특허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권에 대한 제약을 의미
 - 글로벌 제약업체들은 120억불(제네릭 비중 90% 이상) 규모의 인도 제약시장에서의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인도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보호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을 우려 [Business Today, 2012.11.05]

태국,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로 '15년 2조 바트 수익 기대

- 태국 관광청(Tourism Authority of Thailand : TAT)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, 오는 '15년까지 2조 바트의 수익을 올릴 계획
 - 특히 태국이 장점을 가진 △성형수술 △즐기세포 치료 △스파 △전통의학 및 대체의학을 통해 전 세계에서 의료관광객들을 불러 모은다는 방침
 - * TAT는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9월 ‘세계 스파 웰빙 회의(World Spa and Well-being Convention)’를 방콕에서 개최, 의료관광 허브로서의 태국을 적극 홍보
 - TAT에 의하면 태국을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경우 평균 7일간 머물면서 1일 평균 13만 바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
 - 현재 태국을 찾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주로 중동인이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지의 관광객들도 증가하는 추세로, 중국인 관광객들은 거리가 가깝고 비용이 저렴한 태국을 대만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

[Bangkok Post, 2012.11.05]

쿠웨이트, 헬스케어 투자 확대...3천5백여 병상 추가 확보

- 쿠웨이트 정부는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신규 첨단 의료설비와 의료 실험실을 구비하고 3천5백여 병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
 - 특히 9개의 신규병원을 건설함과 동시에 8개의 국립병원 시설을 증축, 병상 수를 늘리면서 수술실과 특수질환 치료실 등도 확대·구비할 방침
 - 또 의료계가 환자정보를 실시간으로 입수하고 의료사고를 감축하며 환자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보건기록(electronic health records) 등 정보기술(IT)을 이용한 첨단 의료 서비스 제공 환경도 구축할 계획
 - 쿠웨이트 정부는 이를 위한 투자에 민간 부문의 참여를 장려
 - 쿠웨이트 정부는 헬스케어 시스템 투자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비만 등 날로 증가하는 질병 부담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인구 증가율도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

[AMEinfo, 2012.10.30]

산업동향

미 BMS, 아빌리파이 마케팅 인력 5백명 감원

- 미국 브리스톨마이어스킵(BMS)은 정신병 치료제 ‘아빌리파이(Abilify)’ 마케팅 부서 인력 479명을 감원할 계획
 - 이번 감원은 제휴업체인 일본 오츠카제약(大塚製藥)이 '13년부터 미국에서 아빌리파이를 독점 판매함에 따라 잉여인력이 발생했기 때문으로, BMS는 아빌리파이 마케팅을 제외한 제조와 유통 부문에서는 오츠카와 협력 관계를 유지할 계획
 - 아빌리파이는 정신분열증·우울증·조울증에 대한 치료제로, 올 3분기 미국에서 전년동기 대비 1% 감소한 5억2백만불의 매출을 올렸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2% 감소한 6억7천6백만불의 매출을 기록 [AP, 2012.11.06]

미 하버드·MIT대, 무통증 의료용 테이프 개발

- 미국 하버드대와 MIT대 공동 연구팀은 강한 접착력을 유지하면서 통증이나 상처 없이 떼 수 있는 새로운 의료용 테이프를 개발했다고 미 국립과학원회보(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)를 통해 발표
 - 테이프는 접착면과 합성수지 시트 사이에 실리콘 박막층이 있는 3중 구조
 - 연구팀은 실리콘 박막층에 레이저를 쏘아 만든 격자 형태의 홈을 통해 시트와 접착면이 강하게 달라붙도록 하는 데 성공
 - 또한 테이프를 떼 때 접착면이 힘을 거의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합성수지 시트만 순간적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환자들에 통증이 없도록 만드는 데도 성공
 - * 기존 의료용 테이프는 접착면과 합성수지 시트의 2중 구조로 접착력은 강하지만 떼 때 환자가 통증을 느끼는 문제가 있으며, 접착력이 덜한 테이프는 의료기기를 제대로 고정 못하는 문제점을 보유
 - 현재 미국에서는 피부층이 약한 신생아나 미숙아를 중심으로 해마다 150여만 명에서 의료용 테이프로 인해 상처가 생기거나 피부 발진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발생 [MIT Technology Review, 2012.11.01]



일 오츠카, 터키 압디와 의약품 판매 합작회사 설립

- 일본 오츠카제약(大塚製薬)이 터키 최대 제약업체 압디 이브라힘 파마슈티컬스 (Abdi Ibrahim Pharmaceuticals)와 이스탄불에 **의약품 판매 합작회사 ‘압디 이브라힘 오츠카제약’**을 설립
 - 합작회사 자본금은 4억4천만엔이며 양사 지분은 50대 50
 - 합작회사는 '13년부터 오츠카제약의 이뇨제 ‘삼스카(Samsca, 성분명 : 톨바프탄)의 판매에 들어갈 예정
 - * 삼스카는 나트륨 등 전해질은 체내에 그대로 두고 수분만 체외로 배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현재 미국과 유럽 및 일본에서 판매
 - 압디는 1912년에 설립된 오랜 전통의 제약회사로 직원 수는 현재 3천5백명이며 지난 '02년부터 오츠카제약의 항혈소판제 ‘플레탈(Pletal, 성분명 : 실로스 타졸)을 판매

[SankeiBiz, 2012.11.07]

미 마이애미대, “타인 골수줄기세포로 심장 치료 가능”

- 미국 마이애미대 연구팀은 타인의 골수 줄기세포로도 심장 치료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심장학회(American Heart Association) 학술회의에서 발표
 - 연구팀은 심장에 상처가 있는 심부전 환자 30명을 대상으로, 한 집단에는 자신의 골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 다른 집단에는 타인의 골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상처 부위에 직접 주입
 - 그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심근 기능이 개선되었으며 개선된 상태가 지속
 -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가 타인의 골수 줄기세포를 이식해도 손상된 심장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
 - 타인의 골수 줄기세포는 사전에 채취해 배양하면 필요할 때 즉시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, 심근 재생을 위한 줄기세포 배양에는 6~8주가 소요
 - 한편 미국에는 현재 5백만명 정도가 심장에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28만7천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

[Examiner, 2012.11.06]

당뇨환자 우회수술, 약물코팅 스텐트보다 효과적

- 미국 마운트사이나이대 연구팀은 동맥에 하나 이상의 질환이 있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우회수술(bypass surgery)이 약물코팅 스텐트(drug-covered stent) 시술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미국심장학회(American Heart Association) 학술회의에서 발표
 - 연구팀은 우회수술을 받은 당뇨병 환자와 약물코팅 스텐트 시술을 받은 당뇨병 환자 총 1천9백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추적 조사를 실시
 - 그 결과 우회수술 치료군은 심장마비와 뇌졸중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19%로 스텐트 치료군의 27%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확인
 - * 심장마비가 발생한 환자 수의 경우 우회수술 치료군이 48명으로, 스텐트 치료군의 99명에 비해 절반에 불과
 - 현재 미국에서는 우회수술 및 스텐트 시술이 매년 1백만건 이상 실시되고 있으며, 이 중 25~30%가 동맥에 하나 이상의 질환이 있는 당뇨병 환자가 대상인 것으로 파악
- [Boston Globe, 2012.11.06]

미 루이지애나주립대, 'MAGL' 효소 억제 통해 알츠하이머 치료

- 미국 루이지애나주립대 연구팀은 '모노아실글리세롤 리파제(Monoacylglycerol lipase : MAGL)'라는 효소의 생성을 억제하면 알츠하이머를 예방 내지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셀 리포트(Cell Reports)에 발표
 - 연구팀은 쥐 실험을 통해 MAGL을 억제할 경우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 축적되어 있는 독성 단백질인 '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(beta amyloid plaque)'가 감소된다는 사실을 확인
 - * MAGL은 뇌신경전달물질 '엔도카나비노이드(endocannabinoid)'를 분해하는 효소
 - 연구팀은 알츠하이머에 걸리도록 만든 쥐들에게 MAGL의 생성을 8주 동안 억제하자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만드는 유전자의 발현이 떨어졌으며, 신경염증과 신경퇴화 표지도 감소되었다고 설명
 - 또 행동 실험을 시행한 결과 MAGL의 생성을 억제할 경우 이들 쥐의 공간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개선되었다고 강조 [Free Press Journal, 2012.11.05]

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, “고단백 식사가 체중 감량에 효과”

-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 연구팀은 일반적 통념과 달리 **고단백 식사가 체중 감량에 효과적**이라는 연구 결과를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(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)을 통해 발표
 - 연구팀은 총 1천63명을 대상으로 식이요법을 하도록 하면서 한 집단은 단백질 비율이 탄수화물 비율보다 높게 하고 다른 집단은 그 반대인 실험을 12주간 24회에 걸쳐 실시(양 집단의 칼로리 섭취량은 동일)
 - 그 결과 단백질 비율이 높은 집단은 탄수화물 비율이 높은 집단보다 체중이 평균 1.8 파운드 더 감량되고 체지방도 많이 분해된 사실을 확인
 - 이러한 결과에 대해 미국 메이요 클리닉의 제임스 레빈(James Levine) 박사는 인간이 휴식을 취할 때도 근육은 다른 조직보다 칼로리를 더 많이 소비한다고 하며 단백질 섭취가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

[American Medical Network, 2012.11.01]

네덜란드 필립스, 요르단에 환자 친화적 환경 구축 지원

- 네덜란드 로얄필립스전자(Royal Phillips Electronics)는 **요르단 파라병원(Farah Hospital)이 환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** 지원하기로 파라의료단지(Farah Medical Complex)와 합의
 - 이번 합의에 따라 필립스는 파라병원 의료진이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고, 환자는 이들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면밀히 파악한 뒤 개선책을 마련해 병원 측에 제시할 계획
 - * 필립스는 세계적인 전자업체로 다양한 헬스기구와 의료기기도 생산
 - 또 환자들은 대기 시간을 줄이면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접수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, 의료진은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**일련의 의료 과정을 정보기술을 이용해 자동화하는 첨단 시스템도** 구축할 방침
 - 필립스는 요르단을 중심으로 한 중동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전 세계 의료계로의 진출을 확대한다는 전략

[Health Tech, 2012.11.05]

미 월그린, 스위스에 뷰티·헬스 합작사 설립

- 미국 월그린(Walgreens)이 스위스 얼라이언스 부츠(Alliance Boots)와 뷰티·헬스 합작사 ‘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디벨롭먼트(Walgreens Boots Alliance Development)’를 스위스 베른에 설립하기로 합의(구체적인 금액은 미공개)
 - 양사는 시너지 창출을 위한 전략적 제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△뷰티·헬스 부문 공급사슬 및 조달에서의 경험 공유 △견고한 비즈니스 브랜드 구축 △ 미국과 유럽 및 신흥시장 진출 등을 위해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결정
 - 이번 합작으로 특히 유럽 뷰티·헬스 시장에 상당한 지각변동이 예상
 - 월그린은 '12년 회계연도에 미국 전역과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한 7천944개 드럭스토어에서 720억불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고객 수는 6백만명을 상회
 - * 월그린 드럭스토어는 약국, 화장품 전문점, 편의점 등이 하나로 합쳐진 유통업체
 - 한편 얼라이언스 부츠는 현재 유럽 11개국 3천3백여 헬스·뷰티 상점에서 화장품, 향수, 액세서리, 헤어케어 및 퍼스널 케어 제품을 판매

[Financial News, 2012.10.30]

프랑스 칼 라거펠트, 코티 대신 미 인터파퓌름스와 향수 제휴

- 프랑스의 칼 라거펠트(Karl Lagerfeld)는 그 동안 같은 프랑스의 코티(Coty)와 향수 분야에서 맺어왔던 라이선싱 제휴 관계를 종결하는 대신 미국 인터파퓌름스(Inter Parfumes)와 향후 20년 동안 손을 잡기로 결정
 - 코티는 자사가 추구하는 독자적 경영전략으로 인해 라거펠트와의 완벽한 공조체제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을 뿐 양사는 구체적인 결별 사유를 밝히는 것을 회피
 - * 양사는 지난 '07년 7월 전략적 제휴계약을 체결, 코티가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향수 브랜드 중 하나인 칼 라거펠트 브랜드 향수 독점 마케팅 권한을 확보
 - 한편 인터파퓌름스는 글로벌 향수시장에서의 사업 확대를 위한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칼 라거펠트와 제휴한다고 밝혔으며, 라거펠트와 오는 '14년 새로운 향수 제품을 공동 개발할 계획임을 피력 [CosmeticsDesign-Europe, 2012.10.31]

프랑스 로레알, 미 헤어케어 유통업체 에밀리아니 인수

- 프랑스 로레알의 미국 자회사 로레알USA(L'Oréal USA)와 미국의 전문가용 헤어케어 유통업체 에밀리아니 엔터프라이즈(Emiliani Enterprises)가 합병에 합의
 - 합병 금액은 미공개된 가운데, 양측은 로레알USA가 살롱센트릭 (SalonCentric) 사업부를 통해 에밀리아니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올해 안으로 합병을 마무리한다는 방침
 - 에밀리아니는 뉴욕·뉴저지·코네티컷주 등 미국 동부 지역의 헤어살롱에 전문가용 헤어케어 제품들을 공급해 온 유통업체로 15개 전문상점과 370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사는 뉴저지주 유니온시티에 위치
 - 로레알USA는 에밀리아니 인수로 전문가용 헤어케어 제품 공급망을 미국내 48개주로 확대하면서 한층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[CosmeticsDesign-USA, 2012.10.29]

일본 제과업체 에자키, 스킨케어로 화장품 시장 진출

- 초콜릿 과자 포키(Pocky)로 유명한 일본 제과업체 에자키 글리코(江崎グリコ)가 스킨케어 라인을 통해 화장품 시장에 진출할 계획
 - 에자키는 피부보습에 효과적인 글리코젠을 핵심성분으로 함유한 로션과 크림으로 구성된 스킨케어 라인을 통신판매 유통채널에 선보일 방침
 - * 에자키는 지금까지 조개류 등에서 추출해 얻었던 글리코젠을 식물성 전분으로부터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한 것이 스킨케어라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파악
 - 스킨케어 라인은 'gg' 브랜드명으로 발매되며, 에자키는 이 라인을 통해 향후 5년 이내 연 10억엔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는 계획
 - 에자키는 gg 스킨케어 라인이 성공적으로 발매되면 글리코젠을 다른 화장품 업체들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
 - 한편 에자키는 지난 '09년 가네보화장품(カネボウ化粧品)과 공동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개발 판매해온 경험을 보유

[毎日新聞, 2012.10.29]

신규보고서

불황을 모르는 미국 고급향수 시장

-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NDP그룹은 '12년 10월 공개한 ‘고급향수 성과 분석 (Prestige Fragrance Performance Year-to-Date)’ 자료에서 올 들어 미국 향수시장에서 고급향수가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강조
 - '12년 1~9월 미국 내 백화점에서 판매된 고급향수는 전년 동기 대비 7% 증가한 16억불 규모를 형성했으며, 남성용 고급향수 판매 증가율이 여성용을 0.5% 포인트 상회한 것으로 집계
- 특히 부쉐롱(Boucheron)· 불가리(Bulgari)· 까르띠에(Cartier) 같은 보석 브랜드 향수와 크리드(Creed)· 조 말론(Jo Malone) 등 틈새 브랜드 향수가 고급향수 시장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수행
 - '12년 1~9월 보석 브랜드 및 틈새 브랜드 고급향수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9% 증가한 가운데 여성용이 18.5%, 남성용이 20%의 판매 증가율을 기록
 - 아직까지 보석 브랜드와 틈새 브랜드가 전체 고급향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%에 불과하지만,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은 확실
 - 일반 향수 가격은 평균 70불 내외인 반면 보석· 틈새 브랜드 고급향수는 대부분 200불 선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350불을 상회하는 제품도 인기
- 미국 향수시장에서는 유통채널이 제한되어 있는 브랜드들의 성장세도 눈에 띄는데, 톰 포드(Tom Ford)와 지미 추(Jimmy Choo) 등 저명 디자이너들의 이름을 딴 브랜드 향수들이 대표적인 사례
 - * '12년 1~9월 디자이너 향수는 전년 동기 대비 7%의 판매 증가율을 기록했으며, 전체 고급향수 판매액의 4분의 3에 가까운 비중을 점유
 - 보석 브랜드와 틈새 브랜드 및 저명 디자이너 브랜드의 향수가 소비자들로부터 관심을 모음에 따라 미국에서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고급향수 부문이 당분간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

터키 제약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

-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미국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(PwC)는 터키제약협회(AIFD)로부터 의뢰를 받아 작성한 ‘23년 터키 제약업계 비전 보고서(Turkey’s Pharmaceutical Sector Vision 2023)’를 '12년 10월 발표
 - PwC는 동 보고서에서 지난 '11년 50억불이었던 터키 제약산업 시장 규모가 오는 '23년에는 230억불 정도로 증가하면서 글로벌 제약업계에서 의약품 R&D 및 제조 허브국가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
- 현재 터키는 브라질, 러시아, 인도, 중국과 같은 파머징(pharma+emerging, 신흥 제약) 국가 중 하나로 간주
 - 이는 터키가 유망한 제약 국가이긴 하지만 선진 제약국은 아니라는 의미로, 터키 제약산업은 저부가가치 의약품 생산에 주력할 뿐 임상시험 수행 능력이 낮아 고부가가치 제품은 수입에 의존하는 한계를 보유했다
 -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지수(Global Competition Index, 2011-2012)에 의하면 세계 142개 조사대상 국가 중 터키의 의약품시장 규모는 16위이지만 임상시험 수행도와 의약품 수출액 측면에서는 36위에 불과
- 그러나 터키 정부가 혁신적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고, 제약업계에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도록 인프라와 생태계를 갖추는 데 지출을 확대하고 있어 오는 '23년에는 의약품 R&D 및 제조 허브국가가 될 가능성이 충분
 - 보고서는 터키가 '23년에 230억불 상당의 의약품을 생산해 3분의 1을 넘는 80억불 정도를 수출하고, 신약개발 R&D에 17억불 정도를 투입하는 가운데 이 중 11억불을 3천6백여 임상시험 시행에 사용할 것으로 전망
 - * 터키는 '11년 41억불의 의약품 수출 적자를 기록했으나 '23년에는 10억불 이상의 흑자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
 -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터키가 아일랜드, 한국, 싱가포르 등 정부 주도의 제약산업 진흥책을 통해 의약품 R&D와 제조 부문의 역량을 크게 강화한 국가들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
 - 특히 항암제, 생명공학 의약품, 혈액제 생산 등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는 부문에 주력하는 전략 추구가 바람직